



학림 활짝 마음 활짝

월정사 전나무 숲을 걸으며 '마음'을 찾는다.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디더라도 지금 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기다보면...

월정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첫 회 현장



서대 염불암에 오른 후 한 불자가 좌선을 하고 있다.

■ 문은 열리고

3월17일 오후, 오대산 월정사의 저녁예불은 어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황토색 수련복을 입은 30여명의 불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법당을 꽉 메웠다.

4월24일까지 계속되는 제2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열리는 첫날, 월정사의 모습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하다. 수련복을 입은 사람들은 3일간 수행학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불자들이다. 단순히 법문을 듣자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귀한 법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열어보려고 먼 길을 달려 온 것이다.

수행학림 입제식에 이어 학림의 첫 문을 여는 월정사 정남 스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수련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귀를 쫓종 세운다. 수련생 뒤쪽으로는 일반 불자들이 대법륜전을 꽉 메웠다.

서울서 온 양혜영 보살(67)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다. 사찰에서 열리는 수련대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터였다. 양 보살과 함께 온 우리는 선우 이수복(62) 이사가 이따금씩 양 보살에게 미소를 보낸다. '뭐든지 배우고 싶다'는 발심을 양 보살은 다시 챙기기 시작한다.

월정사 단기출가 17기생인 박승민(47) 거사는 한암 스님에 대해 배우고 싶어 이번 수행학림에 참가했다. 이른 보다는 행(行)을 중시해 왔던 터라 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에 입각한 한암 스님의 수행법 '승가5칙(僧家五則)'을 그대로 적용한 이번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예불과 아침공양을 마친 수련생들은 대법륜전을 들고 대법륜전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이수복 보살을 눈여겨보면서 따라하지만 양혜영 보살의 비집은 어딘지 어색하다.

곧이어 전나무 숲길을 걷는 경행시간. 삼삼오

한암 스님 '승가5칙' 수행법 배우고자 열기 가득 강의 · 포행 · 철야정진...3보1배로 적멸보궁 참배

오 짝을 지은 수련생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전나무 숲길을 걷는다.

인천에서 온 이영식(55) 거사는 여전히 혼자다. 불교에 입문한 지 3년 남짓했지만 인터넷과 각종 불교서적을 통해 웬만큼 불교를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느낌이 오질 않는다. 불교를 통해 인생의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인가를 골뎠히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다.

■ 나는 누구인가?

강원도의 3월은 아직 겨울이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에는 얼음이 반쯤 남아 있다. 서대 염불암으로 오르는 산길 역시 겨울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길에 수련생들을 머뭇거리게 했다.

"올라갈 수 있다" "무리다" 하는 논란도 잠시, 수련생들은 서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10여 분 만에 두 명이 오를 길을 되돌아갔다. 도대체 이들의 발길을 이 험한 산길로 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서울 봉은사 신도인 박경자(54) 보살은 수행학림에 참가할 때부터 생각한 것이 있었다. '얼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 보자'고. 월정사 단기출가 5기생인 고성미(25)씨는 단기출가 후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짙아졌다. 박승민 거사 역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마음은 어디 있으며, 생사는 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는 삶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서대에 오르자마자 박경자 보살이 염불암 앞 산을 바라보며 가부좌를 튼다. 아마도 염불암에 온 것은 그만큼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리라. 이제 내려가면 평생 다시 오기 힘들지도 모를 험한 길을 수련생들은 자청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염불암 앞에서 간단하게 예불을 올렸다. 염불암에 올랐던 기억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꺼내 보는 거울이 돼서.

서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향한 남대 지장암에서도 수련생들의 '마음' 찾기는 계속됐다. 좌선에 이은 108배, 안양에서 온 구도석(69) 거사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인천에서 온 김승민(24)씨도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는다. 수련생들 가운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 45년이라는 세월의 차이.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오직 지금,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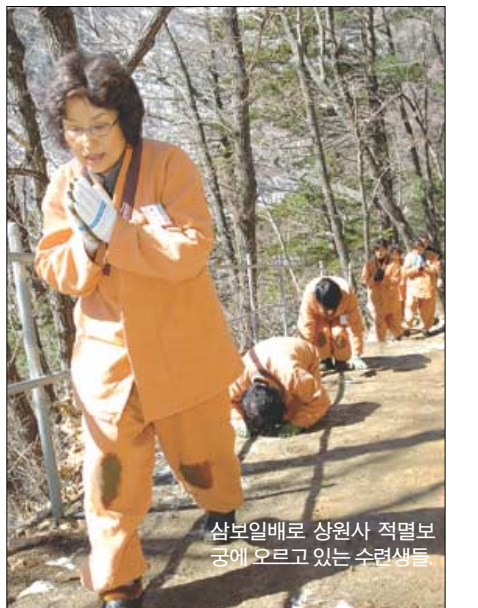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병준 교수가 뒤늦게 비로전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수련생들이 월정사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상원사로 이동, 저녁예불 후 철야정진에 들어가고 할 즈음이다. 학림 첫날 저녁 강의를 듣고 난 후 공장 집으로 달려가 이날 아침 해외로 출국하는 노모를 배웅해 드리고 다시 달려온 길이다. 매주 월정사에 온 지도 벌써 13주째다. 경주에서 월정사까지 그 먼 길을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날 오전, 철야정진을 마친 수련생들이 중대 사자암에서 삼보일배로 적멸보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안 교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서요"라며 먼 길을 오는 이유를 짧게 말했던 안 교수는 철야정진이 꽤 힘들었던 모양이다.

2박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쉴 틈 없이 진행된 두 차례의 강의와 108배, 철야정진, 삼보일배...

"처음에는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겠더군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되겠지요." 수련생들 모두 이영식 거사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삼보일배는 그렇게 계속됐다.

오대산 월정사/글-한명우 · 사진-고영배 기자



삼보일배로 상원사 적멸보궁에 모르고 있는 수련생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가격 245,000원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험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 불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배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속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 하얀한 氣화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이랫배가 냉하신 분
-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쓰름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배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 손목, 어깨, 팔꿈치,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C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C의 고열이 발산 원칙외선이 배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C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애영 ◆일일공휴일도 상담 합니다.